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방 프란치스코

(? - 1799)



충청도 면천의 ‘여’ 고을 태생인 방 프란치스코는 본래 감사의 비장(裨將)이었다. 그는 우연히 고향 인근에 전해진 천주교 신앙을 듣고 입교하였는데, 이후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순교할 수 있기를 열망하게 되었다.

1797년 정사박해로 많은 신자가 붙잡혀가고, 다음 해 방 프란치스코도 홍주에서 체포되었다. 그리고 반년간 심한 형벌을 당한 후,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음식을 두 명의 동료와 함께 받았는데, 그들이 슬퍼하자 이렇게 말했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것도 천주의 은혜지만, 관장이 이렇게 후한 대우를 해 주는 것도 섭리의 은혜인데, 어째서 당신들은 슬퍼하고 풀이 죽어 있소.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오. 만일 우리가 천당을 얻을 이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나중에 또 어떤 기회를 기대할 수 있겠소.” 방 프란치스코의 권고와 격려에 동료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뉘우쳤고, 마침내 이들 셋은 홍주 읍내에서 함께 순교하였다. 때는 1799년 1월 21일이었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

부활 제3주일 · 생명 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66(65),1-2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5,27L-32.40L-41

화답송

시편 30(29),2와 4.5-6.11-12L과 13L(◎ 2L 참조)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령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제2독서

묵시 5,11-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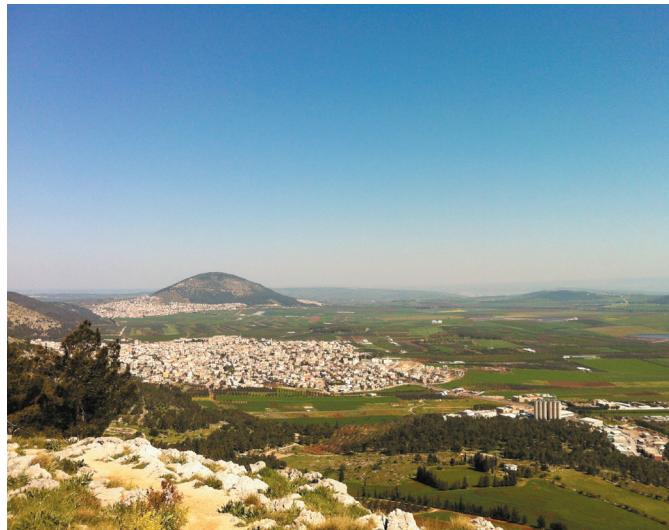
요한 21,1-19(또는 21,1-14)

영성체송

요한 21,12-13 참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네. 알렐루야.

갈릴래아 사람



나자렛에서 바라본 타보르산과 이즈르엘 평야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래아 지방이 나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곳은 ‘이즈르엘’ 평야인데, 그야말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이즈르엘은 ‘하느님께서 씨를 뿌리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 직접 파종하신 듯 곡식이 많이 나는 곡창 지대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갈릴래아 지방에는 예수님의 유년기 고향인 나자렛도 있습니다.

다만 갈릴래아 지방이 워낙 비옥하여 예부터 이곳을 노리는 이방 세력이 많았습니다. 판관 가운데 유일한 여자였던 드 보라는 가나안 장군 시스라의 침입에 맞서 갈릴래아 지방 타보르산 전투에서 승리합니다(판관 4—5장). 그다음 판관인 기드온도 갈릴래아 지방까지 올라온 유목민 미디안을 꺾습니다(6—9장). 이스라엘에 왕정이 들어선 뒤에도, 첫 임금 사울은 갈릴래아 지방 바로 아래쪽에 자리한 길보아산에서 필리스티아와 마지막 전투를 하다 전사합니다(1사무 31장). 오죽하면 성경에 “이민족들의 갈릴래아”(마태 4,15; 이사 8,23)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유다인들은 갈릴래아에서 예언자가 나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요한 7,52).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나타나엘도 그분에 관한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요한 1,46)라고 반문합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초라한 마구간이었듯이, 유년기를 보내신 갈릴래아도 천시 받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점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메마른 묵상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연찮게 접하게 된 주보에서 마더 데레사에 관한 글을 읽은 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 의미를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콜카타에 방치된 빈민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했다던 마더 데레사. 그들을 어떻게든 구해보려 했지만 너무 망가진 탓에 그들에겐 어떠한 의욕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더 데레사는 누군가의 기부금에 의지하거나 후원회를 모으려 한 대신, 그들 곁으로 다가가 직접 돋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태어나 거리에서 죽는 빈민들이 그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날 때, 하느님의 자녀로 죽게 해 주심에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마더 데레사는 예수님 공생애의 의미를 뿌리까지 이해하였던 것 같습니다. 곧 상대의 처지로 직접 내려가 함께 아파하는 진정한 사랑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느님 나라에 걸맞도록 끌어올려 구제하기에는 희망도 의욕도 보이지 않으니, 하느님께서 몸소 가장 누추한 마구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밑바닥 사람들부터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시 받던 갈릴래아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하시며 모두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심으로써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



Q WYD(세계 젊은이의 날, 세계청년대회)란?

A WYD는 World Youth Day의 약어로 가톨릭교회가 전례력 안에서 매해 공적으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1986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처음 개최되었고 매년 열리다가 2021년부터는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국제 단위의 WYD는 2000년까지 격년제로 열렸으며, 2000년 이후로는 3~4년에 한 번씩 대륙별로 돌아가며 교황님이 선정한 개최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Q WYD의 의미는?

A WYD는 교회가 젊은이를 향해 있다는 표지이고 젊은이를 위한 자리입니다. 또한 교회가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며 젊은이들에 의해 새로워지고 더욱 풍요로워지는 젊은이 사목의 현장입니다. WYD에 참여하고 준비했던 이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WYD는 교회의 무조건적인 환대와 사랑, 가톨릭 신앙의 보편성,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리였다."라고 말합니다. WYD는 단순히 젊은이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체 교회의 내적 쇄신과 사회적 변화로 나아가는 풍성한 신앙 체험입니다.

Q WYD의 기대효과는?

A 이런 WYD가 2027년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청소년 공동화 현상과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 천주교회의 현실에서, 그리고 비그리스도교 국가이며 분단의 아픔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라 더욱 특별합니다. 1984년 103위 순교성인 시성식과 1989년 세계성체대회를 계기로 한국 천주교회는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을 깊게 하고 열린 마음으로 젊은이들과 대화하며, 우리나라를 방문할 전 세계 젊은이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환대한다면, 분명 하느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Q WYD와 청년 의정부교구

A 'WYD 2027 서울 본대회'에 앞서 'WYD 2027 의정부 교구대회'가 열립니다. 2027년에 '스물세 살 청년'이 되는 우리 의정부교구는 신앙 안에서 이뤄지는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 성실히 준비할 것입니다. 특별한 것보다 흄스테이를 기반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의정부교구가 살아왔던 모습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순교 신심, 평화와 생태, 이주민과 난민 등이 주요 주제가 될 예정입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용서하렴, 그 젊은 엄마를!

구운 조기를 발라서 팔아이 입에 넣어줍니다. 팔은 “내가 알아서 먹을게.”라고 하면서도 연신 받아먹습니다. “엄마의 사랑이야. 너 어린이집 다닐 때 매일 조기 한 마리씩 구워서 먹였는데, 머리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단백질이 많다고 해서… 기억 안 나지?” 기억이 날리가 없지요. “너 오는 시간만 기다렸어. 따끈한 생선살이 네 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행복했어.” 팔은 고개만 끄덕입니다.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가 행복을 다시 맛본 기분입니다.

두 딸이 다섯 살, 두 살 때부터 일을 했으니 저는 늘 분주했습니다. 아이들은 주로 친정집이나 남의 집,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며 엄마의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다 지쳐 잠들거나 울었던 기억이 대부분입니다. 따끈한 조기 살을 떼어 먹이며 어린 딸과 행복했던 젊은 엄마는 이내 사회적 존재로 변신합니다. 어린이집에 혼자만 남아 엄마를 기다리던 큰딸, 날이 어두워지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엄마의 흰색 차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작은딸, 엄마는 엄마대로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매일이 눈물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왜 어린 딸들의 심정을 더 이해해 주지 못하고, 엄마를 기다리는 슬픔과 불안을 다독여주지 못했을까요. 지금도 철없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집니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 내려놓고 엄마 역할만 하고 싶습니다. 조기를 구워 가시를 발라 먹이며 눈을 맞추고, 추운 베란다에서 엄마의 차를 기다리게 하지 않을 겁니다. 두 딸을 양

옆에 누이고 살을 비비며 안아 주겠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 가족이 소풍 가서 깔깔대고 웃었던 때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엄마~ 가지 마!” 하던 두 딸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엄마, 빨리 와!” 목이 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우리 애들 어떡해요.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맡아 키워주세요. 먹는 거, 자는 거, 다 중요한데 엄마 품에서 자라는 여느 집 애들처럼 잘 돌봐주세요. 사랑만 받아도 부족한데 어린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공허하겠어요. 어머니, 당신 사랑에 기대어 우리 딸들이 상처를 덜 받고 자라도록 보호해 주세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두 아이는 성모님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견뎌내고 잘 자라준 건 성모님의 은혜입니다. 그 덕에 성모님과 친밀해져서 묵주기도를 즐겨 바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부분 까지 양육해 주시며 저보다 잘 키워주신 거지요. 저 역시 성모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소리쳐 부릅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빨리 오세요.” 그러면 성모님께서 다가오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요세피나야, 그땐 어쩔 수 없었잖아. 네 탓이 아니란다. 그 힘든 와중에 엄마와 아내로서 얼마나 애썼니. 이제는 용서하렴, 어린 자식을 곁에서 보호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미워한 그 젊은 엄마 요세피나를!”


예비신학생 모임

대상	일시	장소
일반	5/10(토) 15:30 – 성소주일	혜화동 대신학교
고3	5/11(주일) 09:30 – 성소주일	
중등부·고등부 1~2학년	5/18(주일) 10시	

2025 성소주일 및 유스페스티벌 <희희희>

날짜	시간	행사명	장소
5/10 (토)	12시~18시	수도회 부스존 & 수수(수도자와 수다) 기획전 <작전명: PACEM>	동성중고등학교
	13시~15시	* OSEYO 콘서트 I	
	16시~18시	코이노니아 <똑똑 말했'수다'>	
	19시~22시	* 서울대교구 주교님과의 만남 & 전야행사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10시~11:30	성소주일 미사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5/11 (주일)	12시~18시	수도회 부스존 & 수수(수도자와 수다) 기획전 <작전명: PACEM>	동성중고등학교
		'나' '너' '우리' 사랑 부스존	
	13시~15시	* OSEYO 콘서트 II	
	15시~17시	* 토크콘서트 <나, 너, 우리를 노래하다>	
			대학로 거리

* 표시 행사는 사전등록 필요.

사전등록과 기념품 수령은 만 15~39세 청소년·청년만 가능.

사전등록 ►


2025 DMZ 평화의 길

날짜 5/16(금)~18(주일) [2박3일]

대상 초3 이상 누구나 (40명 선착순)

회비 15만원

문의 031-941-2766, www.pu2046.kr 민족화해위원회

에피 기도모임 제1기 <내 마음 보고 기도하기>

일시 5/12~26, 매주(월) 20시~21:30 [3회] 장소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일산동구 장항동)

대상 만 19~40세 청년 8명 (선착순, 무료) 문의 031-850-1460 청소년사목국

신청 ►


백석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일시 5/25(주일) 16시

장소 백석동 성당 대강당

주례 김종민 F.하비에르 신부

문의 010-2093-4519 백 루시아

한마음 기도영성학교 (초급·심화) – 렉시오디비나 북상기도와 이냐시오 관상기도의 배움터

일정 초급 5/30(금)~6/1(주일), 심화 7/11(금)~13(주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대상 기도를 배우고 싶은 누구나

지도 김경진 베드로 신부

회비 초급/심화 각 20만원 (1인 1실)

문의 031-840-0018 (내선 201)

신청 ►





의정부교구 체나콜로 대피정

주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
 일시: 5/13(화) 08:50~16:30
 장소: 주엽동 성당 대성전
 강사: 김재덕 베드로 신부 (대전교구)
 문의: 010-7239-0957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날짜: 5/21(수)~23(금) [성모의밤]
 5/24(토)~26(월), 6/2(월)~49수)
 주자도포함: 5/17(토)~20(화),
 6/21(토)~23(월), 7/1(화)~4(금)
 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주자도포함성지순례: 5/26(월)~29(목),
 6/1(주일)~4(수), 9/9(화)~12(금)
 생태순례: 5/20(화)~22(목), 6/20(금)~22(주일),
 6/15(주일)~17(화) [주자도]
 우도섬포함여름피정: 7/31(목)~8/3(주일)
 문의: 064-756-6009, 02-773-1463

프란치스칸 효소 단식 피정

주제: 비움에서 충만으로
 일정: 매달 셋째 금~주일 (2박3일) / 25만원
 장소: 꼬벤뚜루 프란치스코회 양평수도원
 문의: 010-8858-7814 구원모 신부

제23회 젊은이 성령축제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로마 15,13)
 일시: 5/25(주일) 10시~17:30
 장소: 인천교구청 보니파시오관
 대상: 청소년, 청년 (가족 참여 가능)
 회비: 1만원 (사전접수시 중식 제공)
 문의: 010-9574-6469

일반인들을 위한 수도생활 배움 피정

1차: 6/27(금) 15시 ~ 29(주일) 13시
 2차: 7/11(수) 15시 ~ 13(목) 13시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회비: 25만원 (접수 후 입금)
 iM뱅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6791-0071(문자)

전대사 은총과 함께 일일 피정

주제: 참행복의 길
 일시: 5/11(주일) 10시~16시 (09시 미사 참석 가능)
 장소: 스승예수제자수녀회 (4호선 미아역)
 내용: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
 강사: 김 마리아 제수이나 수녀
 문의: 010-9742-3842, 02-984-4801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피정 및 5월 토요낮 치유 대피정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피정: 5/5(월) 10시~16시
 메주고리에 찬양기도, 성시간, 미사 안수 (중식무료)
 5월 토요낮 치유 대피정: 5/10(토) 12시~17:30
 미사 안수 (중식무료)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2-874-6346, 010-3310-8826

낙태 후 화해 피정 – 착한목자수녀회

날짜: 5/16(금)~18(주일), 6/20(금)~22(주일) [2박3일]
 장소: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인천) / 회비: 없음
 문의: 010-6637-1366 변 바울라 수녀

성령 안에서 치유회복 피정

주제: 새롭게 하소서
 날짜: 6/14(토)~15(주일)
 장소: 아론의집 (의왕시)
 강사: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
 회비: 12만원 (선착순 100명)
 문의: 010-6366-4022 김성철

강우일 주교와 함께 “푸른꿈 제주섬” 피정

제주섬에서 쉼, 순례(성지, 자연), 말씀 초대
 날짜: 6/9(월)~11(수), 9/18(목)~20(토),
 10/30(목)~11/1(토), 11/11(화)~13(목)

장소: 성 이시돌 피정의 집 (한국통합사목센터)
 대상: 개인, 가족, 단체, 본당 사목위원 및 구반장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5/10(토) 10시 풍동 성당
 5/17(토) 10시 주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2-3673-2525

구산 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성모님은 성부의 딸, 성자의 모친, 성령의 궁전이다
 일시: 5/10(토) 14시~18시 / 장소: 구산성지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지도: 정종득 신부, 성가: 고령민 / 회비: 1만원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의정부교구 성령대축제

일시: 5/10(토) 09시~17:30
 장소: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91)
 강의와 미사: 손희승 베네딕토 주교
 강사: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 (청주교구)
 회비: 5천원 (티켓 구입)
 문의: 010-9697-9004, 010-9297-8821

성경통독 & 길잡이 도형틀

성경을 읽고, 살고, 선포! 도형틀(마인드맵)을 통해
 각 장의 내용을 외우며 통독함
 일시: 6/4(수)부터 [오전반] 10~12시, [오후반] 18~20시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지혜의샘 (중동역 5분)
 대상: 누구나 (오후반은 저녁식사 제공)
 문의: 010-3248-9705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시~16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사: 5/6 한마르티나 수녀, 5/13 이상기 회장
 담당: 김종국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5/16(금)~19(월), 6/20(금)~23(월),
 7/18(금)~21(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 (수유동)
 비용: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본당 출장피정 신청)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2일: 6/28(토)~29(주일), 8/30(토)~31(주일)
 2박3일: 6/23(월)~25(수)
 3박4일: 6/5(목)~8(주일), 7/3(목)~6(주일)
 8박9일: 5/14(수)~22(목), 6/12(목)~20(금)
 40일: 10/14(화)~11/22(토)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오남 성당 성가대 지휘자 모집

일시: 매주일 11시 교중미사
 자격: 천주교 신자로 성가대 지휘 유경험자
 서류: 고적증명서, 이력서 (학력, 일반경력 및
 가톨릭음악 관련 활동 포함)
 성가대 연습: 평일 및 주일
 접수: 우편 또는 이메일 onam1@uca.or.kr
 ※ 소정의 수고료 지급 (채용시 마감)

부모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ZOOM) 특강

일시: 5/16(금) 19:30~21:30
 주제: 청소년 자녀에게 신앙 환경 만들어주기
 강사: 조재연 신부, 천진아 연구원
 접수: 5/12(월)까지
 문의: 02-744-0840 햄살사목센터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5 후기 신입생 모집

모집: 독서교육, 상담교육, 유아교육, 진로진학상담, 특수교육, 직업특수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접수: 4/28(월)~5/11(주일)
면접: 5/30(금), 홈페이지 참조
문의: 02-2164-4176, 4787, 4173
ged.catholic.ac.kr/ged/index.do

그레고리오 성가 지휘법 특강

5/10(토) 14시, 시스띠나 음악원 (신촌)
문의: 010-3308-9849

시스띠나 일산 합창단원 모집 - 혼성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지휘
문의: 010-9842-8818 (나이 제한 없음)

해외가톨릭사립학교 학생&캠프 모집

미국·아일랜드 기숙사 학교, 초3~고1
문의: 02-2258-8983, 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데자오회 해외학교법인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신입사원 공개 채용

분야: OTT운영, 편집기자, 광고마케팅, 방송경영
접수: 5/11(주일)까지
문의: 02-2270-2114, www.cpbc.co.kr 참조

횡성도미니코피정의집 주방근무자 모집

문의: 010-3401-5541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활동: 주일 16시 및 대축일 미사 등
대상: 20~40대 가톨릭 신자
오디션: 5/18(주일) 17시, 명동대성당
※ 명동대성당 홈페이지 단체모집란 참조 (pc버전)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여름학기 모집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과목: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
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양상불
(그레고리오성가·성악·플루트·현악·목관·
리코더·클래식기타) 등

장소: 최양업홀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접수: 5/1(목)~5/23(금)까지
과정: 3개월 수업 (6월~8월)
문의: 02-393-2213~5, www.casm.co.kr

우니파스 청소년·성인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활동: 미사반주, 봉사연주
연습: 주일 14시, 원흥동 성당
문의: 010-5031-3475

청년 기도 학교 모집 – 전교가르멜수녀회

5/22(목)부터 19:30~22시 (총10강) – Zoom강의
문의: 010-7523-0956

제26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캐나다: 토론토대 기숙캠프, 캐나다 및 미동부, IVY리그 탐방
미국: 공립대 1위 UCLA 영어캠프, 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등
영국: 교육 명문 옥스퍼드 기숙캠프,
손흥민 토트넘, 해리포터, 서유럽투어
문의: 02-734-0999, www.pbccamp.com

**안내 · 기타▶▶****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문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성 아우구스띠노 수도회 봉안당·봉안당·평장묘 분양

연천 착한의견의 성모수도원의
봉안당, 봉안당, 평장묘(화장후 매장)를
일반 신자분들께 분양합니다.
문의: 031-834-1262

살레시오 교육관 대관

내용: 세미나, 연수, 피정, 교육 가능
문의: 02-828-3522

꼬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듯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상담자: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미리 준비하는 추석연휴 순례
10/3(금)~13(월) 중앙아시아 (498만원)
10/7(화)~12(주일) 필리핀 (205만원)
10/7(화)~10(금) 중국 상하이 (168만원)
10/7(화)~10(금) 홍콩, 마카오 (189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6/9(월)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8/9(토) 이탈리아, 알프스, 프랑스 (12일)
9/15(월) 프랑스 (루르드, 몽생마셀, 파리) (12일)
9/19(금) 일본 (나가사키, 운젠, 히라도) (4일)
10/20(월) 시니어 산티아고 도보 순례 (12일)
11/10(월) 희망의 순례자들 희년 이탈리아 일주 (11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성심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5/26(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9/18(목) 이탈리아 성체기적성지 (9일)
아시아나 항공 이용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8(월), 9/15(월): 나가사키 (4일, 119만원, OZ)
9/8(월):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495만원)
9/16(화): 성모님 발현지와 스페인 북부
(12일, 535만원, KE)
10/13(월), 10/20(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69만원)
11/2(주일), 11/9(주일): 희년 이탈리아 (7일, 29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일시: 월~금, 10시~16시
내용: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문의: 02-990-9366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6/3(화) 초기교회의 발자취-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470만원)
7/4(금) 성모님 발현성지 4개국 (12일, 560만원)
9/4(목) 북유럽의 진주-발트 3국 (9일, 460만원)
10/8(수) 추석 특선 – 일본 나가사키 (4일, 160만원)
10/18(토) 알프스 주변 수도원 순례 및 성모성지
(12일, 56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사랑의 씨튼 수녀회	5/17(토) 14시~17시	카라의 뜰 (4호선 한성대입구역)	010-5528-3217
	성심수녀회	5/17(토) 15시~17시	성심수녀회 본원 (원효로)	010-5696-2331
	의정부가르멜 여자수도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35세 미만 미혼 여성		010-8078-7016

일치 기원 (Epiclesis Communionis)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하느님과 일치하고 이웃들과도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치를 위해서는 친교의 원천이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감사기도에는 성령을 청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성찬 제정 축성문 앞에 성령을 청하는 기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축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한편, 이때의 성령 청원 기도는 ‘일치’를 기원하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주님과 참된 일치를 이루는 영성체를 준비하는 성격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1양식(로마 전문)에서는 “그리하여 이 제단에서 성자의 거룩한 몸과 피를 받아 모실 때마다 하늘의 온 갖 은총과 복을 가득히 내려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경문에는 일치 기원의 핵심인 성령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성령을 청하는 기도의 본뜻이 약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온갖 은총과 복”이라는 구절에 성령 청원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양식에서는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라틴어 원문은 ‘성령으로 하나로 모이게 해달라.’는 내용인데, 이는 양들을 양 우리에 모으는 착한 목자(요한 10,1-21) 또는 병아리를 날개 안으로 끌어안는 암탉(마태 23,37)에 관한 복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3양식에서는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갖은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일치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사실이 더욱 뚜렷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라는 구절은 일치의 내용을 더욱 명확히 밝힙니다.

제4양식은 1코린 10,17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주님, 몸소 교회에 마련하여 주신 이 제물을 굽어보시고,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받으려는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소서.” 여기서는 성찬이 갖는 제사와 식사의 이중 특성, 그리고 예배와 실천 생활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감사기도의 일치 기원문들은 각각 성령의 활동과 은총을 표현합니다. 또한 성찬의 일치와 사랑의 정신을 제시합니다. 이는 「전례헌장」이 말하는 성찬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제사는 자비의 성사이고 일치의 표징이고 사랑의 끈이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어, 마음을 은총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가 미래 영광의 보증을 받는 파스카 잔치이다”(47항).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031-974-1728	사 무 실
031-972-8537	팩 스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행주성당



성모봉소승천

토요일	19:00 토요저녁주일미사
주일	09:00 주일 아침 미사
	11:00 교중 미사
평일	11:00 월, 화, 수, 목, 금
성시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5월 3일 필립보: 장중환, 이정우

5월 8일 보니파시오: 유승태

■ 5월에 기억해야 할 본당 선종 교우

신순남 마리아, 최태욱 베드로, 광복례 마리아

선종한 교우를 위한 미사: 5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

전례

■ 두봉 주교님 묘소 봉안 경당 미사

본당의 날을 맞아 두봉 주교님과 함께 김수환 추기경 추모 공원에서 미사를 봉헌하려 했던 행사를 주교님의 선종으로 인하여 주교님 묘소를 찾아 함께 추모하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일 시: 5월 18일 주일 12시 미사

■ 성소 주일 2차 현금

다음 주일에는 성소 주일 2차 현금이 있습니다.

본당공지

■ 5월 성모 성월 묵주 기도

5월 한 달 동안 매일 미사 1시간 전에 성당에서 묵주 기도를 봉헌합니다. 조금 일찍 오시어 묵주 기도 봉헌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에는 오후 3시에 묵주 기도 봉헌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목협의회 월례회의

일 시: 5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 성모의 밤

일 시: 5월 24일 토요일 저녁 미사 전

■ 5월 18일 주일 본당 미사

두봉 주교님 묘소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5월 18일 주일 행주 본당에서의 미사는 오전 9시, 11시 평상시와 같이 그대로 봉헌합니다.

우리들의 정성 (4월 21일 - 4월 27일)

교무금	3건	620,000원
주일헌금		960,000원

■ 감사헌금

오윤주 20,000원

■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담당

05월 04일	주송자	신은석(안젤라)
	고백주(안토니오), 허경옥(도로테아)	
05월 11일	주송자	전옥자(수산나)
	윤병수(그레고리오), 석마리아	